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SENIOR 조선

JUNE
2015
VOL.38
senior.chosun.com

Come Inside

스위스 시계의 메카, 제네바
교보라이프플래닛 이학상 대표의
버킷리스트



(시니어조선) · 캐나다관광청 · 대한항공이 함께하는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사연 공모에 뽑힌 한 커플에게
캐나다 여행의 기회를 드립니다!

5

전 설 의 진 화

단 한번이라도 5D 시리즈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있었던가?
스틸과 동영상의 완벽한 구현으로
전설이 되었던 EOS 5D 시리즈
더욱 강하게 진화된
EOS 5D Mark III가 그 전설을 이어간다

EOS 5D Mark III

Canon



極

사.실.주.의

세계 최초 5060만 초고화소
이제, 수퍼픽셀 시대를 열다

극한의 디테일이 선사하는 놀라움
지금껏 보지 못한 비주얼의 세계
타협을 모르는 당신을 위해

5의 이름으로 또 한번 혁신하다

Canon

LENS EF 24-70mm 1:2.8 L II USM

EOS
5Ds



〈시니어조선〉·캐나다관광청·대한항공이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꿈의 여행지, 캐나다로 떠나는 두 번째 신혼여행!

오늘 아침, 옆에 있는 그분께 사랑한다고 말하셨나요? 아니면 수십 년째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어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옆에 있어주어 고맙다고요. 시니어라면 누구나 긴 세월 동고동락한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 그간의 고생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시니어조선〉, 캐나다관광청과 대한항공이 깜짝 여행을 선물할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꼭 다녀와야 하는 곳으로 꼽는 꿈의 여행지 캐나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가득한 캐나다로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나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등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의 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면 지금 즉시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사연 공모를 통해 뽑힌 한 커플에게 캐나다 여행의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 자격	만 44세 이상의 건강한 심신을 지닌 한국 국적의 액티브 시니어 커플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방법	<p>〈시니어조선〉 홈페이지(http://senior.chosun.com/event)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p> <p>이메일 접수 remindhoneymoon@gmail.com</p> <p>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구관 3층 〈시니어조선〉 편집부 (우 100-756) (우편물 하단에 '리마인드 허니문 여행 응모' 표기)</p>
여행 지역	캐나다
여행 시기	2015년 6월 말 ~ 7월 초
신청 기간	2015년 3월 30일(월) ~ 6월 15일(금)
당첨자 발표	2015년 6월 24일(수) 〈시니어조선〉 7월호 및 senior.chosun.com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지
지원내역	왕복항공권, 호텔, 식사(부분적으로 제공) 및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기는 〈시니어조선〉에 게재됩니다.
기타사항	여행 중 촬영한 사진과 기사의 초상권 및 저작권은 〈시니어조선〉 · 캐나다관광청이 갖습니다.

이벤트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08 홈페이지 www.keepexploring.kr 여행상품 문의 02-733-7790
 협찬 대한항공(kr.koreanair.com), 브리티시컬럼비아 관광청(www.helloBC.co.kr), 온타리오 관광청(www.ontariotravel.net/kr)



KOREAN AIR

**SUPER. NATURAL
BRITISH COLUMBIA
CANADA**

**ONTARIO
CANADA**

Canada
keep exploring



08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들.

10

Hats on the Beach

해변의 강렬한 태양을 피하고 싶은 신사숙녀라면
모자가 필수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점잖으면서도
멋스러운 여름 모자를 엄선했다.

12

True Blue

블루와 네이비, 화이트의 만남은 보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낮추어준다.

14

뚜껑 열리는 여행, 컨버터블 혹은 카브리올레

6월은 소중하다. 지붕을 열 수 있는 자동차는
이 계절을 본격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딱 8대만 골랐다. 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16

교보라이프플래닛 이학상 대표이사의 버킷리스트

성공한 시니어의 삶과 꿈을 들어보는 연재 칼럼
'CEO의 버킷리스트'. 핀테크 시장의 선두주자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이학상 대표를 만났다.

18

스위스 시계의 메카, 제네바

〈시니어조선〉은 스위스의 시계 도시를 탐방하며 시계의 역사와
장인정신을 돌아보는 칼럼을 연재한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스
위스 시계가 태동한 도시, 제네바로 여행을 떠나본다.



2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오세요!

브리티시컬럼비아 관광청의 아시아 마케팅 개발 매니저 모니카 리크가
그 숨은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

22

궁궐 전문가 이효일

50대 이후 시니어를 위한 종합 포털 〈유어 스테이지〉의 온오프라인 클럽인
'궁궐 이야기'의 명예회장 이효일 씨. 은퇴 후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제2의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듣는다.

24

첫 차 구입 조언으로 알아보는 자녀 경제교육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주역인 베이비부머들은 자녀의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황극을 통해 각기 다른 부모들의 경제 교육관을 살펴본다.

26

환경과 인간을 위한 가치경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시기를 맞추어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이것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보다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소개한다.

28

중장년 취업과 창업의 든든한 지원군 시니어파트너즈

중장년 교육 전문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가 '2015년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와
'2015년도 고령층 IT창업교육'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30

이달의 정보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연 디올 부티크, 스타 셰프들과
함께하는 브리즈 고메, 남성을 위한 올인원 화장품,
세금 재테크 비법을 담은 신간 등을 만나보자.



루미노르 1950 레가타 3데이즈
크로노 플라이백 티타니오-47mm

파네라이와 파네라이 클래식 오토 챌린지가 만나 탄생한 루미노르 1950 레가타 3 데이즈 크로노 플라이백 티타니오. 3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자동 무브먼트와 오토 레이스를 시작하는 순간 카운트다운을 실행할 수 있는 레가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플랜지에는 출발 시점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위한 15분의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마지막 5분 구간은 오렌지 컬러로 강조되어 있다. 또한 일정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오토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노트(knot) 단위의 타키미터 눈금이 새겨져 있다. 가볍고 견고하며 알레르기 방지 기능이 있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으며, 케이스는 브러싱 처리, 베젤은 대조적인 폴리싱 처리로 마감했다. 케이스백의 넓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 P.9100/R 무브먼트의 정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49-5922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PARTN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이사 조규숙 ks.cho@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황정원 hjw@chosun.com
객원기자 김우성 ws.kim@yourstage.com
이은정 euninsa@gmail.com
사진 C. 영상미디어
디자이너 장선희 rioba@chosun.com
교열 최귀열 gwiyeol61@hanmail.net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f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교화사
출력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 지역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서울 강남, 신사, 압구정, 청담, 잠실, 송파, 이태원, 상형 및 경기 분당의 변화가 카페, 레스토랑, 병원, 은행, 호텔, 스포츠센터, 수입자동차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탐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감각까지, 기술로

The new Audi A6



당신의 드라이빙 감각을 기술로 대신하다

The new Audi A6, 당신의 드라이빙 감각을 대신할 새로운 기술을 갖추고 태어났다. 정확한 경로를 안내하는 스마트한 MMI 내비게이션과 안전을 더하는 Active lane assist, 보다 밝고 넓은 시야를 확보해주는 Matrix LED 헤드라이트와 편리한 Voice activation, 그리고 언제나 완벽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폴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와 50 TDI 엔진까지. 이 모든 기술이 있는 The new Audi A6라면, 당신은 드라이빙만 즐기면 될 것이다.

www.audi.co.kr

Audi 
Vorsprung durch Technik

전시장	•도곡로 02)564-1468	•강동 02)489-3468	•방배 02)523-1468	•청담 02)516-2468	•서초 02)521-0000	•송파 02)412-3468	•대치 02)555-3468	•용산 02)797-1468		
	•목동 02)2676-1468	•동대문 02)2247-2460	•한강대로 02)790-1468	•분당 03)743-0000	•판교 03)712-7777	•안양 03)422-0000	•일산 03)905-1468	•광교 03)263-0000		
	•인천 032)465-1468	•수원 031)241-0033	•천안 041)567-3111	•청주 043)265-7799	•부산 남천 051)611-3844	•부산 해운대 051)995-0000	•울산 052)257-3883	•대전 042)863-8787		
	•대구 053)744-7070	•광주 062)525-8777	•순천 061)746-7733	•전주 063)915-0000	•창원 055)245-2233	•진주 055)924-0000	•포항 054)275-0066	•군산 063)461-0110		
•원주 033)766-7786	•춘천 033)263-4200									
서비스센터	•대치 02)555-4834	•성수 02)3425-0033	•송파 02)400-2834	•영등포 02)2672-1468	•서초 02)597-8255	•논현 02)540-3900	•용산 02)798-1468	•분당 03)715-8255	•일산 03)905-1463	•인천 주안 032)429-1468
	•인천 구월 032)465-1463	•수원 031)634-0033	•부산 남천 05)628-0056	•부산 민락 05)626-0056	•대구 053)350-8900	•대전 042)862-8802	•천안 041)563-5900	•청주 043)285-8802	•광주 062)524-5959	•순천 061)724-3500
	•전주 063)905-5511	•울산 052)227-2255	•창원 055)245-0999	•원주 033)764-8787	•제주 064)744-0911					

■차종 및 표준연비 •차종명: 아우디 A6 50 TDI quattro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1,913kg, 지동7단) 복합연비: 12.5km/l (도심연비: 11.3km/l, 고속도로연비: 14.4km/l),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차종명: 아우디 A6 50 TFSI quattro (배기량: 2,995cc, 공차중량: 1,890kg, 지동8단) 복합연비: 9.7km/l (도심연비: 8.4km/l, 고속도로연비: 12.2km/l),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82g/k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PERFUME

아로마틱 남성 향수 케네스콜 블루 출시

달콤하고 시원한 향수 케네스콜 블루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된다. 페라리 라이트에센스, 돌체앤가버나 라이트블루 등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 강세를 띠는 아시아 남성의 취향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 로맨틱한 도시 남성을 연상시키는 프루티 아로마틱 계열로 부드러운 이미지의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다. 이탈리아 베르가모트, 만다린, 파인애플의 싱그러운 향으로 시작해 경쾌한 민트와 라벤더가 남성의 유쾌함을 표현한다. 마무리는 시더우드, 드라이우드, 머스크 등이 어우러지며 세련되면서도 도시적인 매력을 자랑한다. 보틀 디자인은 기존 베스트셀러인 케네스콜 블랙의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 보틀과 단상자의 색상은 향수의 시원한 향취를 담은 스카이 블루로 변화를 주었다. 메탈 소재의 실버 블루 캡 역시 케네스콜의 밝고 활기찬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케네스콜 블랙은 향수계의 오스카 상이라 불리는 FiFi 어워즈 2004에서 올해의 남성 향수상 렉스(LUXE)를 수상한 바 있다. 케네스콜 블루는 전국의 주요 백화점 매장, BTY 갤러리, 화장품 매장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케네스콜 블루 오드투알렛 50ml 6만7천원, 100ml 8만9천원. 문의 02-3443-5050 Writer 이은정

FASHION

피아제, 파리 뒤편 7번지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피아제가 그들의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장소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스토어가 들어선 곳은 뒤편 7번지로, 찰스 프레데릭에 의해 오토 쿠티르가 탄생한 곳. 이탈리아 사샤의 크리스틴 켈리오즈가 설계했으며, 아늑하면서도 위풍 있는 공간과 장식을 선보인다. 특히, 피아제만의 특별한 쇼케이스가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저녁에는 최신 디스플레이 윈도가 최첨단 광섬유 기술이 빚어낸 마법 같은 불빛을 비추고, 스토어의 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숭고한 장인정신을 기리는 피아제만의 분위기에 압도된다. '매뉴팩처의 역량'이라는 쇼케이스에는 피아제의 CEO 필립 레오폴드 메츠거의 지휘 아래 지난 몇 년간 25개의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생산해낸 수공 기술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격조 높은 경치의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하이 주얼리 공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마법 같은 디스플레이 윈도 안에서는 매년 선보이는 두 개의 메인 컬렉션을 두 개의 측면등이 밝게 비추고 있다. Writer 황정원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



FASHION

버버리, 미디엄 시그니처 그레이н 가족 토트백

버버리가 미디엄 시그니처 그레이н 가족 토트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그니처 그레이н 가족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우아한 라인과 트렌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러가 특징이다. 탈착이 가능한 가족 어깨끈과 금속 지퍼 여밈으로 토트백과 크로스백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내부 지퍼 포켓은 실용성을 더했으며, 유광 금속 하드웨어로 디자인 또한 더욱 감각적이다. 버버리만의 시그니처 그레이н 가족으로 제작해 튼튼하고 견고하며 패일 그레이, 블랙, 블루카본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 세 가지다. 오피스 룩과 파티 룩 모두에 적합한 잇백이니 꼭 눈여겨볼 것. 송아지 가죽 100%로 제작되었으며 가격은 2백50만원이다. 전국의 버버리 매장 및 BUREBRRY.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85-6536 Writer 황정원

ART

도시의 잔재에 주목하다.
〈우리가 알던 도시 - 강홍구, 박진영 사진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사진 부문 기획 전시 〈우리가 알던 도시 - 강홍구, 박진영 사진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랫동안 도시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사진작가 강홍구, 박진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재개발과 재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오늘의 도시가 겪고 있는 상실과 불안의 정서를 다룬다. 디지털 합성 사진 위주로 작업하는 강홍구 작가와, 정통 다큐멘터리 작업에 충실한 박진영 작가는 작업방식은 대조적이지만 남겨진 도시의 잔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각기 다른 시선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도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대조의 재미는 다른 곳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다. 6월 건축전문 전시실에서 개막하는 〈아키토피아의 실험〉(6.30-9.27)전 역시 도시를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관람객은 이 두 전시에서 이상향으로서의 도시 건설을 꿈꾸는 건축가들의 낙관적 태도와 도시의 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사진가들의 비판적 시선을 통해 건축과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5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의 02-2188-6000 Writer 황정원

©강홍구_오쇠리풍경



©박진영_자전거

MOVIE

중년 남성을 향한 서늘한 유혹, 〈러브 이즈 크라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 초청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러브 이즈 크라임〉이 한국 관객을 찾는다. 뇌가섹시한 중년 남성을 둘러싼 유혹과 사랑, 미스터리를 담은 섹슈얼 스릴러다. 여대생들과 가벼운 잠자리를 즐기는 매력적인 문학교수 마크(마티유 아말릭). 어느 날, 그의 강의를 들던 여대생 중 하나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크는 대학 내 분위기를 의식해 몸을 사리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대생 아나가 노골적으로 그를 유혹한다. 여기에 실종 여대생의 젊고 아름다운 계모인 안나가 등장하며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고, 마크의 유일한 가족이면서도 때로는 연인 같은 누나 미리안과도 미묘한 상황이 전개된다. 미스터리한 세 여자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마크의 일상도 하나 둘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뜨거운 러브신과 서늘한 서스펜스가 교차하는 〈러브 이즈 크라임〉은 5월 28일에 개봉한다. Writer 이은정





MARSHAL

PREMIUM GOLD EDITION V5

놀라운 비거리,
세련된 정교함으로
그린을 공략하라!

Fairway wood

MAN : #3-15°, #4-18°, #5-21°
LADY : #3-15°, #4-18°, #5-21°

Utility

MAN : #2-17°, #3-20°, #4-23°
LADY : #4-22°, #5-25°

Hats On the Beach

해변의 강렬한 태양을 피하고 싶은 신사숙녀라면 모자가 필수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점잖으면서도 멋스러운 여름 모자를 엄선했다.

Writer 황정원
Photographer 양수열(C. 영상미디어)
Stylist 정소정 · Styling Assistant 유다혜

위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윗부분의 핑크색 포인트가 멋스러운 청이 넓은 아이보리 모자는 가격미정, **트리니티**. 브라운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모자는 79만8천원, **파비아나필리피**. 청 부분에 블루 컬러의 자수가 우아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모자는 40만원, **헬렌카민스키**. 지브리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소녀들이 좋아할 듯한 선스크린 모자는 48만원, **에릭자넷 by 라뚜슈**. 바다를 닮은 시원한 블루 컬러가 인상적인 중절모는 92만원, **브리오니**. 물놀이에 필수용품인 남성 블루 체크 수영복 팬츠는 72만원, **빌브레권**. 시원한 면 소재로 스트라이프 패턴의 에스파드리유 슬립온은 7만9천원, **솔루도스 by 플랫폼**. 깔끔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화이트 컬러 중절모는 13만9천원, **보브**. 블루 컬러 렌즈에 레오파드 패턴 프레임이 개성적인 스퀘어 미러 선글라스는 17만5천원, **제이에스티나x스테판크리스티앙**. 카키 컬러로 캐주얼하게 매치할 수 있는 모자는 10만8천원, **브론떼 by 플랫폼 플레이스**. 프린지 디테일이 들어가 캐주얼한 스타일의 브라운 컬러 모자는 13만8천원, **클럽모나코**.

문의

보브, 브론떼 by 플랫폼 플레이스,
클럽모나코, 트리니티,
솔루도스 by 플랫폼 02-3446-7725
브리오니 02-540-4723
빌브레권, 헬렌카민스키 02-3444-1730
제이에스티나x스테판크리스티앙 02-3442-3012



LEGENDARY HIT MUSICAL

전세계 1억 5천만 명이 열광한 마스터피스
브로드웨이의 영원한 수퍼스타

JESUS CHRIST SUPER STAR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Lyrics by
Tim Rice

Music by
Andrew Lloyd Webber

마이클리

박은태

한지상

윤형렬

최재림

이영미

장은아

함연지

김영주

김태한

지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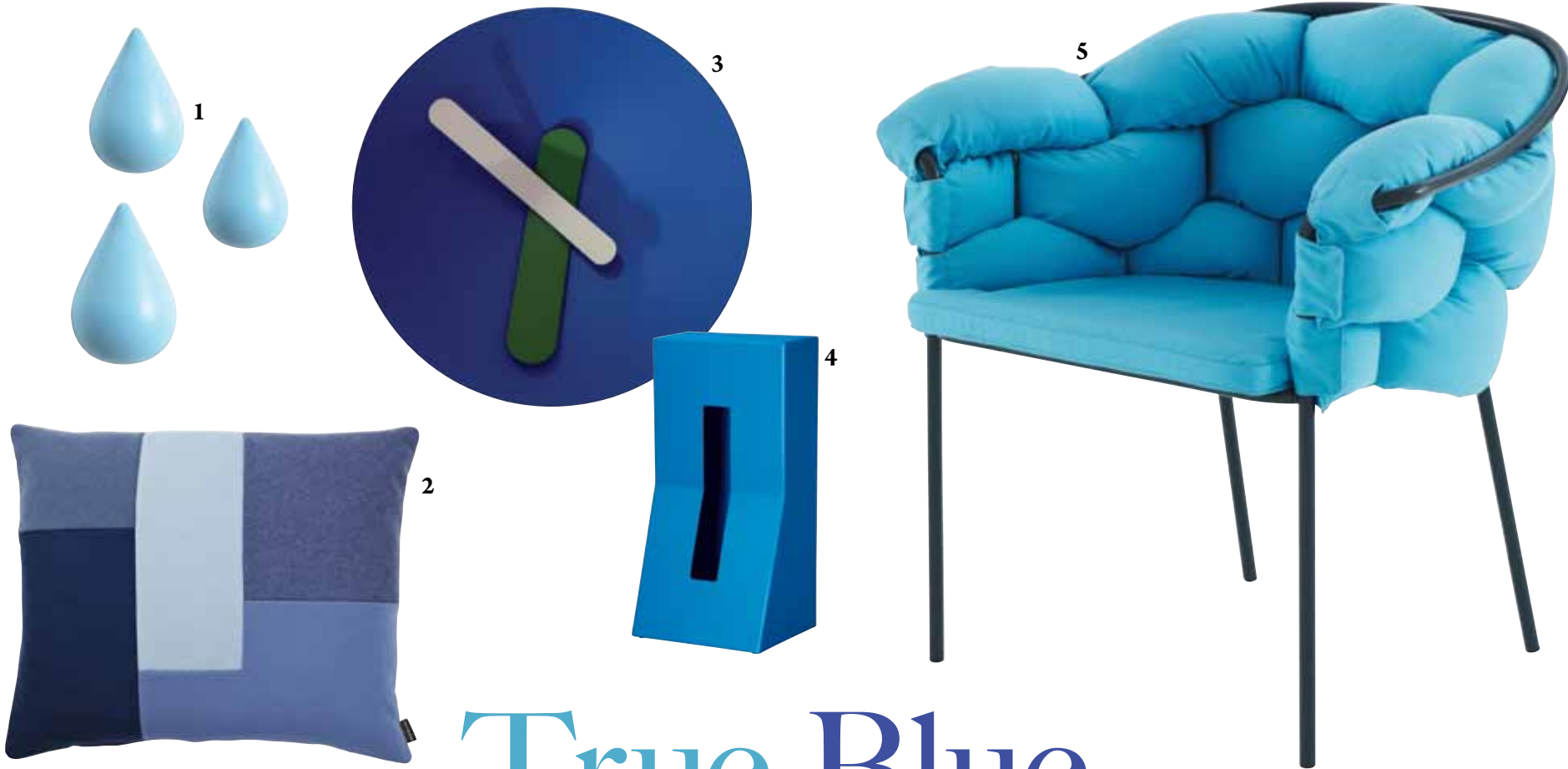
〈오페라의 유령×캣츠〉에 이은 웨버의 위대한 명작

6.12~9.13 | 샤롯데씨어터 |

비씨카드와 함께합니다

문의 1577-3363 예스24 인터파크 옥션 티켓링크 하나프리마켓 BC LOUNG 샤롯데씨어터 롯데 수퍼스타문화산업진흥회 LOTTE ENTERTAINMENT R&G RUG ktb 메트로24 하나투어 CLIP2 비씨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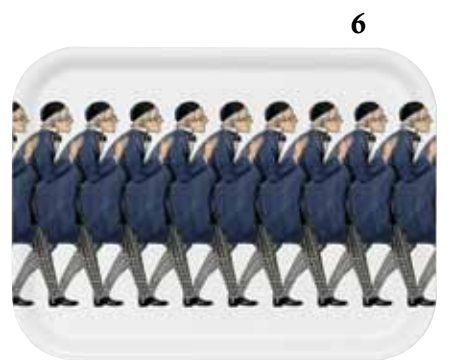
3,4인 패키지 최대 25% R·S석 한정 ▶ 재관람 20% (수퍼스타)유류타axes 소지지 1인 2매 한정 ▶ 학생할인 30% 조종고 SA석 한정 ▶ 문화가 있는 날 최대 50%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 공연 한정



True Blue

블루와 네이비, 화이트의 만남은 보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낮추어준다. Writer 황정원

1 많을수록 더 예쁜 소나무 소재의 코트랙, 드랍잇후크는 2개 1세트 5만6천원, 노만 코펜하겐 by 이노메싸. 2 테트리스 블록을 연상시키는 패턴의 브릭쿠션은 12만6천원, 노만 코펜하겐 by 이노메싸. 3 심플한 모지아 벽시계는 46만원, 디아만티니 & 도메니코니 by 웰즈. 4 오브제 자체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ABS 소재의 티슈케이스는 3만6천원, 두엔데 by 첩터원. 5 올록볼록 재미있는 디자인의 아웃도어용 세르팡틴 의자는 1백75만원, 리네로제 by 디사모빌리. 6 특유의 일러스트로 포인트를 준 엘리사백쇼 트레이는 4만3천원, 디자인하우스 스톡홀름 by 이노메싸. 7 엮어놓으면 이동식 스톨, 뒤집으면 공간박스로 변신하는 아놀드 서커스 스톨은 22만원, 마르티노 캠퍼 by 첩터원. 8 제품 이름처럼 이슬방울 모양의 독특한 패턴이 고급스러운 카스테헬미 보티브는 5만9천원, 이탈라. 9 모던한 그래픽이 매력적인 둥근 접시는 각각 2만1천원, 아즈마야 라운드 디시 TWL 에디션 by TWL. 10 귀여운 모양의 종접시는 각 2만1천원, 아즈마야 by TWL. 11 클래식한 디자인과 핑키한 컬러의 매치가 위트 있는 쇼타임 소파는 1천2백20만원, BD 바르셀로나 디자인 by 웰즈. 12 도트와 스트라이프 패턴이 멋스러운 세라믹 티컵은 각각 3만6천원, 플레이트는 3만4천원, 첩터원. 13 매트블루로 코팅 마감한 피암 알터 에고 거울은 1백50만원대, 도무스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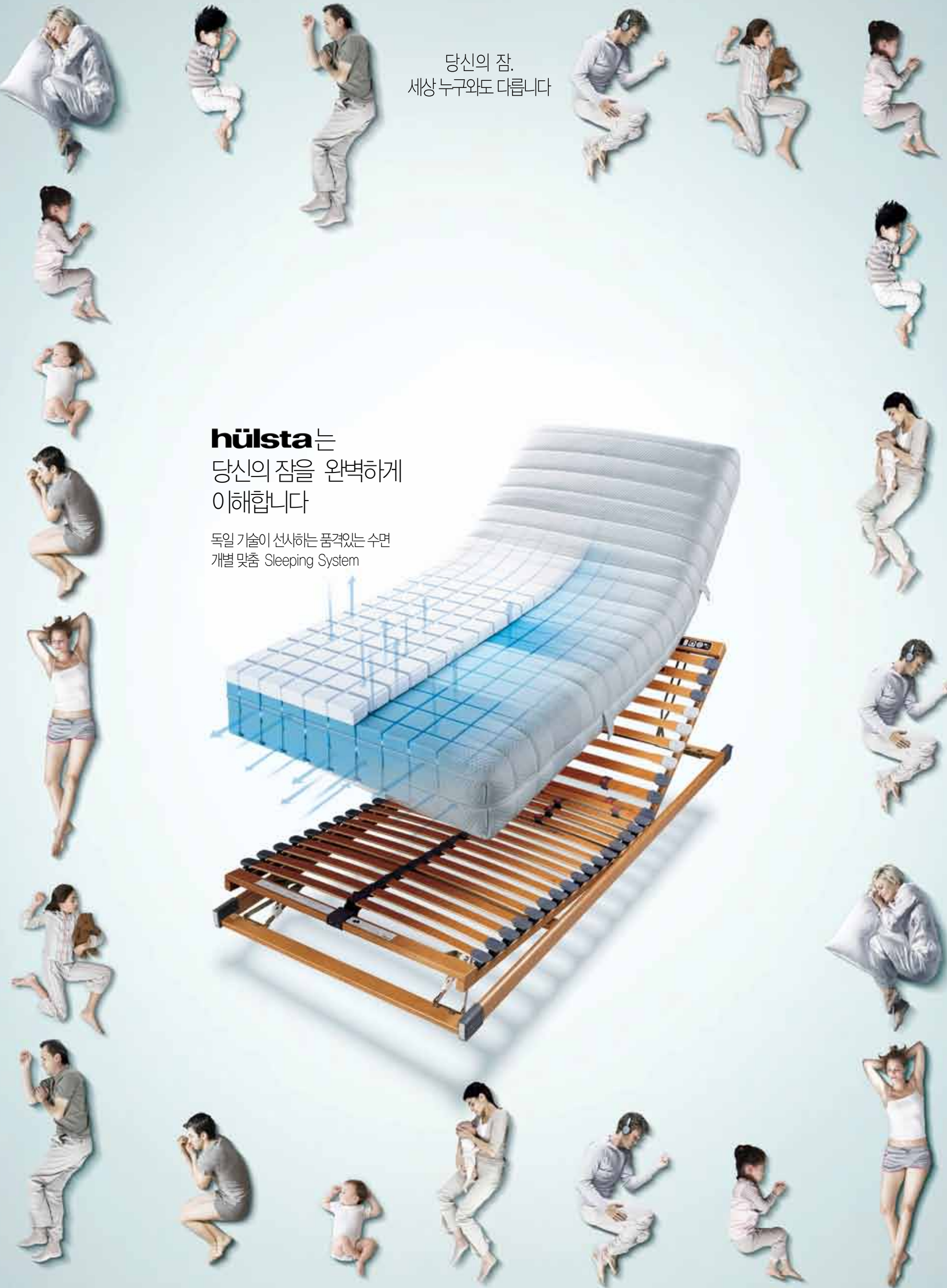


문의
이노메싸 02-3463-7710
웰즈 02-511-7911
디사모빌리 02-512-9162
첩터원 070-8881-8006
이탈라 02-3406-2187
TWL 070-4223-0151
도무스디자인 070-7006-5520

당신의 잠.
세상 누구와도 다릅니다

hülsta는 당신의 잠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독일 기술이 선사하는 품격있는 수면
개별 맞춤 Sleeping System



뚜껑 열리는 여행, 컨버터블 혹은 카브리올레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안보다 밖이 좋은 날씨...
6월은 소중하다. 지붕을 열 수 있는 자동차는
이 계절을 본격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동하는 모든 순간을 진짜 낭만으로 채울 수 있다.
딱 8대만 골랐다. 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Writer 정우성(GQ KOREA) 자동차담당 기자

뜨거운 사계절, 장마와 폭염, 거의 곧바로 이어지는 혹독한 겨울. 한국에서 컨버터블을 산다는 게 여러모로 도전이라는 걸 안다. 봄, 가을은 이제 왔는가 싶으면 저만치 가 있다. 하지만 컨버터블을 타고 지붕을 여는 날은 날씨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결정한다. 30℃가 넘는 날이라도 가벼운 모자와 선크림을 준비하면 별 무리 없이 열 수 있다. 영하 1~2℃ 정도의 날씨에도 (민기치 않겠지만) 지붕을 열고 상쾌하게 달릴 수 있다. 요즘 컨버터블의 공조장치가 똑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붕을 열고 달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시각이 관대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나 눈만 오지 않는다면, 한겨울 혹한이 아니라면 오픈 에어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내 쾌락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시선 같은 것,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잘 알지 않나? 지붕을 열고 떠날 수 있다는 건 매우 독특하고 호사스러운 경험, 한번 익숙해지면 양보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다.



▲ 포르쉐 박스터 GTS

재규어 F-타입 S 컨버터블 ▶



◀ 메르세데스-벤츠 SL 63 AMG



재규어 F-타입 S 컨버터블

영국차 특유의 위트를 갖춘 컨버터블로, 지금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 감각을 어색하게 느낀다면 가질 수 없을 테지만, 그 자체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면 재규어 F타입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V6 2,995cc 가솔린 엔진이 최고출력 380마력, 최대토크 46.9kg.m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4.9초다. 모든 순간이 인상적이지만, 지붕을 열고 터널에 진입해 가속페달을 밟을 때, 깊이와 감각에 따라 달라지는 그 웅장하고 섹시한 배기음을 못 잊는다. 희소성과 아름다움, 개성과 재미까지. 1억 2천9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 컨버터블

벤틀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년의 모험심과 역동성을 간직한 사람에게 어울린다. 극상의 품위,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벤틀리가 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컨버터블은 거기에 낭만까지 보탰다. 5,998cc W12기통 트윈터보 엔진은 아주 낮은 엔진 회전수부터 폭포수 같은 힘을 쏟아낸다. 지붕을 열었을 땐 이 모든 걸 날것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7초, 최고속도는 시속 314킬로미터에 달한다. 성공한 인생의 또렷한 증표이자 목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뿌듯한 선물. 벤틀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다. 2억 9천5백만원.

BMW 6시리즈 컨버터블

6시리즈 컨버터블은 인생의 가을, 풍성한 수확과 배려에 어울리는 차다. BMW의 면도날 같은 운전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포근하게 어디에 안긴 것같이 운전할 수도 있다. 뒷좌석에 앉은 소중한 사람이 문득 잠들 만큼 달리는 해질녘과, 혼자서 중미산 굽잇길을 공략하는 새벽이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편안한데 강력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예민하다. 게다가 천지붕을 여닫을 수 있으니, BMW의 지평이 과연 이렇게 넓다는 걸 몸으로 깨달을 수 있다. 4,395cc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의 최고출력은 450마력, 최대토크는 66.3kg.m이다. 시속 100킬로미터 가속 시간은 4.6초, 최고속도는 250킬로미터다. 1억 4천9백1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SL 63 AMG

메르세데스와 AMG의 이름이 같이 있는 차에는 어떤 의심도 덧붙여선 안 된다. AMG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을 책임지는 자회사다. 게다가 SL은 더 이상 호사스러울 수 없는 컨버터블이다. 5,461cc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의 최고출력은 537마력, 최대토크는 자그마치 81.6kg.m이다. 일상적으로, 도로에서는 체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수준의 성능이다. 이 성능을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을 땐 강원도 태백이나 전남 영암의 트랙을 달리는 게 좋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달리는 모든 고속도로와 국도는 매우 고전적인 품위와 호사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가 없으면 또 어떨까? 2억 1백만원.



▲ 벤틀리 컨티넨탈 GT 컨버터블



▲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 포드 머스탱 GT 5.0 컨버터블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 BMW 6시리즈 컨버터블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중형 쿠페 A5를 바탕으로 천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든 컨버터블이다. 카브리올레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는 차를 유럽식으로 부르는 말, 컨버터블은 미국식 명칭이다. 매우 적절한 출력과 토크, 안정적인 운전 감각은 아우디가 보증하는 산뜻함이다. 게다가 A5 카브리올레에는 분명한 주관과 여유가 묻어 있다. 이 차저 차 저울질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우디 A5의 디자인과 존재감에 반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 다른 차가 부러울 일도, 사놓고 후회할 일도 없을 것이다. 1,984cc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의 최고출력은 220마력, 최대토크는 35.7kg.m이다. 7천 1백80만원.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이탈리아의 봄밤 같은 아름다움과 호방한 기개. 마세라티는 보닛과 배기구에서 나는 소리를 적극적으로 즐기겠다는 명백한 목적을 갖고 도전하는 차다.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의 관현악부가 절정에서 내는 소리가 이럴까? 아주 멀리서 지나갈 때도 마세라티가 내는 소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란카브리오는 지붕을 열고 달릴 수 있는 마세라티다. 마세라티에 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4,691cc V8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460마력, 최대토크 53kg.m을 낸다. 시속 100킬로미터 가속 시간은 5초, 최고속도는 시속 285킬로미터다. 2억 4천1백80만원.

포드 머스탱 GT 5.0 컨버터블

누굴 이기려고 타는 차도 아니고, 과시하려고 타는 차도 아니다. 진동은 진동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고를 수 있는 차이기도 하다. 다분히 고집스럽고 그 자체로 멋진 선택일 수 있다. 머스탱 GT 5.0 컨버터블은 그 정점에 있다. 4,951cc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422마력, 최대토크 54.1kg.m을 낸다. 잔뜩 힘을 비축해뒀다가 갑자기 출발할 땐 주변이 흰 연기로 자욱해질 지도 모른다. 타이어와 아스팔트 사이에서 나는 흰 연기 때문에. 머스탱은 그 호쾌함, 어쩔 줄 모르겠을 정도로 넘치는 힘, 자평선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차다. 6천 5백35만원.

포르쉐 박스터 GTS

지붕이 열리는 포르쉐를 갖췄다면, 일단 누구도 못 이길 것 같은 911 카브리올레가 있다. 다분히 미래적이고 기하학적으로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911 타르가도 있다. 하지만 박스터의 유쾌하고 재빠른 감각도 외면해선 안 된다. 박스터에는 박스터만의 감각이 있고, GTS는 그중 고급스럽고 강력하니까. 3,436cc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330마력, 최대토크 37.8kg.m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4.7초다. 돌아서 지붕을 열고 달리는 해안도로를 상상했을 때 박스터의 재치와 여유를 이길 수 있는 차는 거의 없다. 과연, 가장 낭만적인 포르쉐다. 1억 5백50만원.

CEO's Bucket List

교보라이프플래닛 이학상 대표이사

“가족과는 추억을 쌓고, 고객과는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성공한 시니어의 삶과 꿈을 들어보는 연재 칼럼 ‘CEO의 버킷리스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꿈이 빛나고 있다. 초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핀테크 시장의 선두주자,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이학상 대표를 만났다. Writer 황정원 · Photographer 이신영(C. 영상미디어)

최근 광고계와 인터넷에서 대세로 떠오른 단어 ‘핀테크’. 금융을 뜻하는 ‘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technique’의 합성어로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한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 거래, 클라우드 펀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또 하나, 인터넷 보험이 추가되었는데, 그 포문을 연 곳이 바로 교보라이프플래닛이다. 가입부터 유지, 지급까지 보험의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설계사 수수료나 점포 유지 비용 등 유통 비용이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매력이다. 보험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고, 금융은 대면 서비스라는 개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용 보험의 출범은 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이어가며 업계 ‘선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업적도 많다. 올 4월에는 가입부터 유지, 지급까지 보험의 모든 과정을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올해 초에는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을 모두 돌려주는 획기적인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이학상 대표가 있다. 그는 2013년 말, 한국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인터넷 전용 보험을 출범시킨 주인공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합리적인

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모습이 금융 회사가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 같은 ICT 기업의 CEO처럼 보인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소위 ‘잘나가는’ 금융인이었던 그가 돌연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한국에서 이룬 것과 이룰 것,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에 대해 고백했다.

선진 금융기술로 고국에 이바지하려던 꿈

한창 예민할 시기인 16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영어로 현지 아이들을 이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더 열심히 했고, 결국 대학에 가서도 그쪽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금융인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는데, 그쪽으로 취업해서 선진 금융기술을 접하게 되자 새로운 목표가 생기더군요.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고국에 전수해서 우리나라 금융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것이었죠. 그 꿈을 실현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귀국하던 2001년은 한국이 막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재화를 위해 특히 금융 쪽 해외 전문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흐름과 함께 다시 고국 땅을 밟은 뒤, 미국에서 번역보험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국내 최초로 번역보험을 도입하고, 최초로 인터넷 전용 생명보험사를 설립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우리 가족, 친구, 지인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좋은 보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노년의 장기간 생존이나 질병 발생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는 위험에 대비하는 유일한 금융 상품입니다. 조상들의 ‘계’나 ‘품앗이’처럼 상당히 인본적이고, 따뜻한 가치를 지닌 상품이지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가 세계 5위일 정도로 크지만, 글로벌 컨설팅사인 ‘캡제미니’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만족도는 조사대상 30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과도한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조기 해지 시 원금 손해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불신을 견어내고, 생명보험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험 상품이 달라져야

▶ 교보라이프플래닛 메인 화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용 생명보험사다.





▲ 평소 검도로 건강을 단련하는 이학상 대표가 소장하고 있는 진검.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사의 구구절절한 영업이 아니라도 상품 자체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이고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어야 하지요.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이야말로 믿음을 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생명보험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은 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만나 상품 가입을 권하는 이른바 '푸시 영업'에 의존하는 측면이 큼니다. 이에 비해 인터넷 보험사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 상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저희 라이프플래닛의 경우 전화를 통한 영업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고객의 선택을 기다려야만 하지요. 따라서 고객이 먼저 찾을 만큼 상품 경쟁력이 뛰어나야 하고, 동시에 이용 편의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전용 보험사다보니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고객은 상대적으로 2030세대의 가입자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ICT에 익숙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도 빨리 습득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고객이 '나이'가 아니라 '니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시니어 세대는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처럼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분도 많고요. 오히려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젊은 연령층보다 더 깊기 때문에 높은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연령대별로 나누어 공략하는 것보다는 타깃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고객지향적인 상품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저희 상품이 대면채널에 비해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T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IT기기를 통한 보험 가입이 쉽고 간편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시작이 반이다, Just do it!’이라는
명언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생각만 많이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기보다는 우선 시도부터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연히 시작한 운동이 인생을 바꾸다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학창 시절 저는 전형적인 '범생이'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수학과 물리학만 파고드는 공부벌레였지요. 하루는 대학원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한눈에도 사진 속에 너무나 따분해 보이는 범생이가 있는 거예요. 두꺼운 안경, 마른 몸에 아무렇게나 걸친 헐렁한 옷. 그래서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 외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인 셈이죠. 그 뒤로 매일 프로틴 셰이크를 먹으며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질의 친구들 사이에서 운동하러니 주눅이 들어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 혼자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저도 근육질의 몸이 되었죠. 당시 사진을 보면 'Before vs. After'가 확연히 다른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후로 운동에 재미를 붙여 검도를 하게 됐고 최근에는 등산, 캠핑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두 아들이 검도에 취미를 붙이게 돼 아주 기쁩니다. 사내 녀석들을 키우면서 아기 때부터 '운동을 할 줄 알게 되면 검도를 배우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둘 다 잘 따라주었죠. 아무래도 검도가 장비와 의상이 멋지다보니 어린 마음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향한 저의 버킷리스트가 또 하나 성취되었습니다. 검도는 건강에도 좋지만 예의범절을 익히면서 집중력과 판단력, 지구력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합니다.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저항력도 생기고요. 또,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을 하다보면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 직원들과 소통도 더 잘되고 팀워크에도 도움이 됩니다.

늘 젊은 생각으로 소통하는 CEO 되고파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때 약 한 달간의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당시 첫째가 한 살 정도로 아주 어릴 때였는데, 부모님께 잠시 아기를 부탁드리고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하느라, 결혼 후 아내와 이렇다할 만한 추억을 쌓질 못했었거든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까지 가보고 싶었던 곳을 마음껏 다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 온 뒤 다시 일에 집중하게 됐지만, 아내에게 은퇴 후에 다시 한 번 그때처럼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때는 아마 분위기를 바꾸어 아프리카 등 오지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일만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보니 저도 차근차근 달성한 것이 많네요. 모범생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 금융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미국의 금융 노하우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 아내와 긴 여행을 떠나는 것,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 앞으로는 가족들과 좀 더 소통하고, 업무에도 도움이 되도록 일어를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일본인인데, 아내에게는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서 정작 저는 일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거시적으로는 라이프플래닛 CEO로서 보험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 회사를 알리고,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쌓고, 좋은 남편과 아버지, 존경받는 CEO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젊은 생각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과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싶어요. 경영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늘 젊은이들에게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평생 노력해야 할 숙제이겠지요. 버킷리스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작이 반이다, Just do it!'이라는 명언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생각만 많이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기보다는 우선 시도부터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에서 독립한 25번째 생명보험사입니다. 이 같은 결단을 내리기까지 3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한 연구와 노력이 있었고,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했다면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업부 형태로 운영했을 테고 지금처럼 인터넷 생명보험시장이 주목받고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길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이프플래닛은 핀테크 선도기업으로서, 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정책과 기술의 도입에 있어 늘 앞서 행동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개척자가 되어, 핀테크 육성을 위한 금융 정책 소통에 앞장서고, 보험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1

이은경의 시계여행

스위스 시계의 메카, 제네바

〈시니어조선〉은 스위스의 시계 도시를 탐방하며 시계의 역사와 장인정신을 돌아보는 칼럼을 연재한다. 스위스 시계산업의 근원지부터 현재 가장 많은 시계 브랜드가 들어선 곳, 그리고 스위스 각지의 시계 관련 산업과 장인들의 마을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연재를 맡은 시계 컨설턴트 이은경 씨는 “지금까지 스위스를 알프스와 은행의 나라로 인식했다면, 이번 칼럼을 통해 스위스 메이드 시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포부를 밝혔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스위스 시계가 태동한 도시, 제네바로 여행을 떠나본다.

Writer 이은경(시계 컨설턴트, 〈시계, 남자를 말하다〉 저자)

제네바는 스위스 시계의 성지라 할 수 있다. 각 종교에도 그 종교가 처음 생겨난 곳을 성지라고 부르듯이, 스위스 시계산업이 시작된 시계의 성지는 바로 제네바다. 궁극의 워치 브랜드인 파텍 필립부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인 바세론 콘스탄틴, 부동의 1위 브랜드 롤렉스 등 시계 애호가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시계 브랜드의 본사가 위치한 곳도 바로 제네바다.

신교도 정착과 함께 시작된 스위스 시계의 역사

스위스 시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인물은 유명 시계 브랜드 창업자나 천재적인 워치메이커가 아니라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다. 1541년 존 칼뱅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출신의 신교도들을 데리고 제네바에 정착했다. 칼뱅은 성서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했고, 직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이론으로 상공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검소한 생활을 중시하던 칼뱅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화려한 사치품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칼뱅이 제네바로 이주하기 이전에 제네바 원주민 대부분은 귀금속 세공이나 에나멜링 등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 칼뱅과 함께 이주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이주한 신교도들은 귀금속 금지로 더 이상 장신구를 만들 수 없었던 제네바인들에게 시계 제작법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 시계 제



2



3



4



5

조, 즉 스위스 시계 제조 역사의 시작이다.

1601년에는 제네바에서 세계 최초로 ‘시계제조업자조합’이 결성되었다. 1685년에는 위그노라 불리던 프랑스 신교도들이 신교박해를 피해 프랑스 접경 지역인 제네바에 정착하면서 제네바의 시계산업은 더욱 발전했다. 17세기 후반에는 제네바의 무역업자와 장인들로 구성된 공방협회가 설립되었고, 장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얼리, 금 세공품, 시계를 제작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시계산업의 부흥과 제네바 실의 탄생

이후 스위스 시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18세기 말 제네바는 터키, 인도, 중국 등 전 세계로 6만 개 이상의 시계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제네바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했기에 제네바 북쪽의 쥐라 산맥으로 시계산업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네바는 고급 시계의 대명사였다. 결국에는 제네바 명칭을 남용하는 일이나 모조품이 많아졌고, 1886년 제네바 주는 위조와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제네바 실(제네바 홀마크)’을 법령으로 공표했다.

제네바 실은 시계의 출처, 내구성, 정확성과 시계학적 전문성에 관하여 진정한 최고급 시계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개발과 발전을 거듭해온 제네바 실은 고객과 최고급 시계 애호가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기대에 부응할 만한 차별화된 기준을 제 공해왔다. 특히 2011년 설립 125주년을 기념하며 제네바 홀마크는 더욱 까다롭게 개편되었다. 기존의 제네바 실이 무브먼트만을 인증했다면, 개편된 제네바 실은 시계 한 피스 전체를 검증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종전의 조항들이 피니싱에 포커스를 둔 조항에 가까웠다면,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은 수증 압력 저항 기능이나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 같은 기능 면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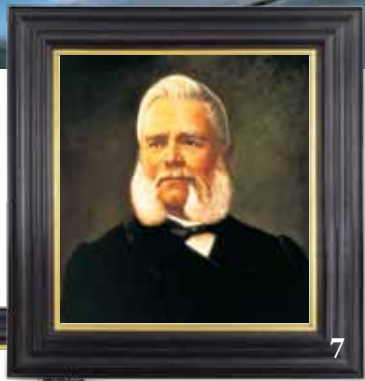
매년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약 2천만 개의 시계 중 2만 4천 개만이 제네바 품질 보증 마크를 획득한다. 로저 드뤼는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계가

제네바 인증을 받고 있으며, 바쉐론 콘스탄틴도 거의 모든 제품에 제네바 인증이 따른다. 까르띠에의 경우 제네바에 별도의 워크숍을 설립, 일부 하이엔드 모델에서 제네바 인증을 받고 있다.

살아 있는 시계 박물관, 제네바

제네바를 여행한 사람들은 제네바에 대해 ‘시계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곳,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시간을 알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실제 제네바 곳곳에는 각 시계 브랜드에서 제작한 벽시계가 거리 곳곳에 자리해 있다. 고급 레스토랑 한켠에 자리 잡은 벽시계 또한 위블로, 브레게, 롤렉스, 오메가 등 유명 시계 브랜드에서 특별하게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제네바 영국공원의 꽃시계도 제네바의 명물 중 하나다. 계절마다 6천 송이 이상의 꽃과 식물로 새롭게 단장하는 꽃시계는 시계산업의 메카인 제네바 도심에 위치해 있어 더욱 인상적이다. 시계 브랜드 본사부터 시계 박물관, 시계 매장 등 시계와 연관된 장소도 유난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쉐론 콘스탄틴 부티크와 파텍 필립 뮤지엄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 마크 바쉐론이 공방을 설립한 생 제르베(St. Gervais) 지역은 스위스 시계 장인들의 공방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875년 케 드릴(Quai de L'île)로 공방과 부티크를 이전했는데, 14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바쉐론 콘스탄틴의 공방과 부티크가 이곳에 위치해 있다.

파텍 필립 뮤지엄은 제네바 대학과 바스티옹 공원 인근에 있는데 바스티옹 공원은 칼뱅의 종교개혁비가 있는 곳이다. 시계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제네바를 여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파텍 필립 뮤지엄을 필수 코스로 방문한다. 이곳에는 파텍 필립의 역사적인 타임피스뿐 아니라 다양한 앤티크 위치가 4개 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다. 사람들이 제네바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유럽 여행 중 중간 기착지로 들를 수도 있고, 비밀 제작 개설을 위해서 일 수도 있다. 칼뱅의 종교개혁 현장을 보기 위해, 또 유엔본부 같은 국제기구를 보기 위해 제네바에 방문할 수 있다. 제네바를 방문하는 이유야 어찌됐든 그곳에서 파텍 필립 뮤지엄을 관람하고, 140년이 넘는 바쉐론 콘스탄틴 부티크를 방문하고, 제네바 거리 곳곳에 즐비한 시계 브랜드 간판과 부티크 등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시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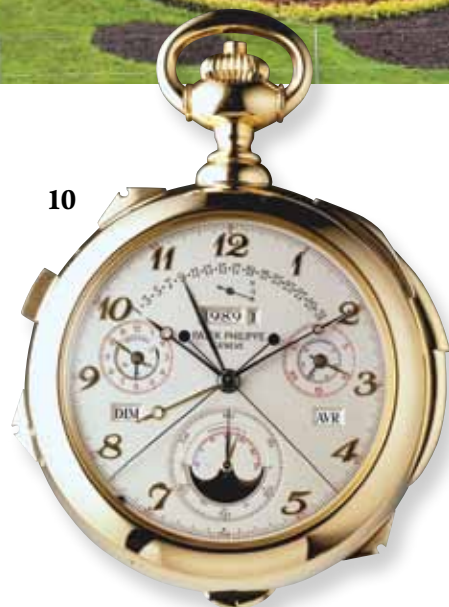


8



사진 depositphotos

9



10

- 1 1906년에 오픈한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부티크 전경.
- 2, 5 파텍 필립 뮤지엄은 제네바를 방문하는 이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다.
- 3 제네바 홀마크는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무브먼트와 시계 중 극소수의 최고급 등급만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마크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 로저드뤼의 매뉴팩처 전경. 로저드뤼는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계가 제네바 인증을 받고 있다.
- 6 제네바 홀마크를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최신 칼리버 3300.
- 7 앙투안 노르베르 드 파텍의 초상.
- 8 장 마크 바쉐론의 초상.
- 9 제네바 명물인 꽃시계는 계절마다 6천 송이 이상의 꽃과 식물로 단장한다.
- 10 파텍필립 1989 Calibre 89.



6



1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오세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원시적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민족이 만들어낸 도시 문명이 어우러진 멋진 관광지다. 이곳 관광청의 아시아 마케팅 개발 매니저 모니카 리크가 그 숨은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

Writer 박기석 · Photographer 양수열(C, 영상미디어)



2

- 1 BC 주를 직접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관광청의 아시아 마케팅 개발 매니저 모니카 리크.
- 2 캐필라노 계곡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곡과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다.
- 3 예술인들의 퍼블릭 마켓을 만날 수 있는 그랜빌 아일랜드.
- 4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판매하는 수공예품.



3

캐나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 주 관광청 아시아 마케팅 개발 매니저인 모니카 리크(Monica Leeck)가 한국을 찾았다. 캐나다와 BC 주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다.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BC 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화 등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그는 BC 주의 필수 3대 여행지로 꼽는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밴쿠버, 빅토리아, 휘슬러를 꼽았다. 그가 전한 BC 주의 특별한 매력 속에 퐁당 빠져보자.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밴쿠버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바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밴쿠버다.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파크(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와 스탠리 파크(Stanley Park) 등은 캐나다 특유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말해준다.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는 밴쿠버를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들르는 세계적인 명소다. 안개가 가득한 숲 속에서 두 골짜기를 이은 다리와 절벽에 마련한 좁은 산책로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듬뿍 마실 수 있다. 스탠리 파크 역시 밴쿠버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 둘레가 10k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도심 속 공원으로 유명한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넓어요. 공원 안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빌려주니 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밴쿠버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신선한 해산물이 아주 풍부하다. 항구 도시로 일식, 중식, 이탈리아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도 쉽다. 식도락을 즐기는 여행객에게 최적의 관광지인 셈이다. 이에 따른 여행 상품도 개발돼 있다. 배를 타고 직접 계를 잡아보거나 밴쿠버 시내에 있는 길거리 푸드트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관광 명소인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에서도 식도락을 경험할 수 있다. 해산물, 채소, 치즈 등 신선한 음식 재료가 가득하다. 캐나다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수공예품, 예술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항구와 정원,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가득한 빅토리아

빅토리아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BC 주의 주도(主都)다. 별명이 ‘정원의 도시’일 만큼 어디서나 쉽게 꽃을 구경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차트 가든(The Butchart Gardens)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원으로 수많은 종류의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섰큰 가든, 로즈 가든, 재페니스 가든, 이탈리아 가든 등 네 곳으로 나뉘어 있다.



4



특히 5월부터 8월까지의 꽃이 절정을 이룬다. “산책을 마치고 가든 내 레스토랑을 꼭 들러보세요.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길 수 있는데 홍차와 디저트가 아주 좋습니다. 정원을 바라보며 이를 맛보면 영국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겠죠?”
항구 근처에는 노천 카페와 노점상에서 음악이 흘러나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피셔맨즈 워프(Fisherman's Wharf)라 불리는 수상가옥촌은 동남아의 수상가옥과 또 다른 느낌이다.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집이 모여 있어 아담하고 동화 속 삽화 같다.

4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무궁무진한 휘슬러

휘슬러는 지난 2010년 밴쿠버와 함께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만큼 겨울 레포츠인 스키,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한편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4계절 내내 방문할 만하다. “겨울엔 동화 속 마을처럼 눈(雪)이 가득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180도 변한답니다.” 휘슬러(Whistler) 산과 블랙콤(Blackcomb) 산의 정상을 연결하는 곤돌라 ‘피크 투 피크(Peak 2 Peak)’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곤돌라다. 이를 탑승하면 휘슬러 지역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리크 매니저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곤돌라를 타면 재미가 두 배”라며 웃었다. 이 밖에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된 케이블을 타는 zip트랙(Zip Trek), 산악 자전거, 노천 온천 등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5월부터 9월까지 참가할 수 있는 ‘휘슬러 에코 생태 투어 프로그램’은 자연 그대로의 꿈을 관찰하는 활동이다. 휘슬러 주변 호수에는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많다.

여유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

“밴쿠버, 빅토리아, 휘슬러를 경험했다면 눈을 돌려보세요. 색다른 매력이 넘치는 여행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밴쿠버 아일랜드가 좋은 예다. 빅토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안가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팍스빌 등 밴쿠버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BC 주에서 유일하게 동쪽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이곳은 바다가 아주 잔잔하다.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북미에서 신흥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가을에 동해안 도로를 따라 캠벨 리버(Campbell River)까지 올라가면 수천만 마리의 연어가 회귀하는 절경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탐험 여행은 매우 다채롭고 돌고래, 흑곰, 바다표범 등을 구경할 수도 있다. 한편 BC 주의 동쪽 내륙 지역인 오키나간(Okanagan) 호수 근처는 최상급의 와인 생산지다. 특히 서머힐(Summer Hill), 미션힐(Mission Hill) 와이너리가 유명하다. 이곳을 방문해 와인과 잘 차려진 정찬을 함께 맛보는 여행 상품도 있다. 이 같은 정보는 BC 주 관광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국내 여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관광청(www.helloBC.co.kr) 캐나다 관광청(www.keepeexploring.kr)
브리티시컬럼비아 관광청 블로그(blog.naver.com/tbckorea)

- 5 푸른 동형 지붕이 인상적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사당.
- 6 세계 최대 규모의 정원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부차트 가든.
- 7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바라본 밴쿠버 다운타운의 모습.
- 8 환상적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스쿼미시 공원의 시투스카이 곤돌라.
- 9 빅토리아에는 개성 넘치는 수상가옥촌 피셔맨즈 워프가 있다.



김형래의 시니어테크

첫 차 구입 조언으로 알아보는 자녀 경제 교육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수성가의 아이콘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주역인 그들은 자녀의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황극을 통해 각기 다른 부모들의
경제 교육관을 살펴본다. Writer 김형래(시니어파트너즈 상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은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녀만은 경제 관념이 뛰어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자녀의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자녀가 따라 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찾아주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 부모가 경제 생활에 모범을 보여주면 자녀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이 이루어진다. 드물게 이루어지는 경제 교실 교육으로 보완하려 하지만, 실 생활과 연결되지 않아 그야말로 몸 따로 마음 따로 경제 교육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다. 가끔 외신은 해외 거부들이 자녀에게 용돈을 벌게 하며 실전 경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도하곤 한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은 과연 자녀의 경제 관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지원하며 오로지 학력 향상에만 매진하라고 독려하는 부모와 용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하라는 부모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과연 정답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주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통해 부모의 역할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극을 만들어보았다. 자, 아래 에피소드를 따라가보자.

‘상황극’의 막이 오른다. 스크린에는 큼직한 글자체로 한 문장이 보인다. ‘사회에 막 진출한 자녀가 그간 모아놓은 돈 5백만원으로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

1 제일 먼저 한국 부모가 등장한다. 한강의 기적을 몸소 이룬 ‘베이비붐 세대’, 자수성가의 기틀 아래 사회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경험 세대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 주인공이다. 그들의 조언은 이렇게 전개된다. 먼저 애국심을 바탕으로 차종을 고른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니 국산 차가 좋겠고,’ 그다음은 경제성을 기반으로 선택의 폭을 줄여간다. ‘배기량은 1,500cc 전후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유류 비용과 연비를 고려해서 ‘디젤차’를 저울질한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유행을 고려해서 ‘RV’가 좋을지 ‘세단형’이 좋을지 고민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조언한다.

“차종은 국산, 배기량 2,000cc, 디젤, SUV, 차량 가격 2천5백만원 수준이면 좋을 것 같다.”

자녀가 모은 돈으로 ‘계약금과 자동차 보험료를 치르고, 부족한 금액은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조건이 따라붙는다’고 설명해주었다. 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저 정도면 아주 합리적이고 적당한 조언이야.” 객석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전형적인 자동차 구매 방식을 잘 보여준 듯싶었다. 객석 한구석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린다. “빛을 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구나. 안타깝다.”

2 두 번째로 미국 부모가 등장한다. 이 부모도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은 대학교 입학 시

기를 자녀 독립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기에 자녀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부모가 조언해준다는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못해서 무대에 올라와서는 자녀에게 간결하게 조언한다.

“5백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되겠네.”

아무런 부속 설명 없이 무대에서 내려간다. 관객들은 수군대기 시작한다. “아, 저런 것이 미국인의 합리주의적 경제관이구나” 하는 칭찬의 소리와 “너무한다. 사회에 첫 출발하는 자녀에게 중고차가 뭐야?”라는 불멘소리가 뒤섞인다. 객석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며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3 세 번째로 일본 부모가 등장한다. 이들 부부는 세계적으로 화려한 활약을 보여준 ‘단카이 세대’다. 웬지 모르게 표정이 많이 굳어 있다. 그래도 어려운 취업의 문을 통과한 자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이 부모의 조언으로 객석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동차를 산다고? 정신이 있는 소리야?”

잃어버린 30년을 버티느라고 많이 지친 듯한 반응이었다. “대중교통이 멀쩡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무슨 자동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세금은 얼마인데? 자동차 때문에 의료보험료도 자동 인상되지 않니? 더구나 주차비도 내야 하는데, 얼마나 번다고 자동차를 산다는 것이야?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돈을 먹는 괴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허세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 말이나?” 일순 객석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빠졌다. 무대 연출자가 고함치듯 조언하는 부부를 겨우 진정시키며 무대 밖으로 끌어내렸다. 동시에 객석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맞아, 사회 초년생이 무슨 차가 필요해?” 맞장구치듯 “그러게, 세워두는데도 돈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지. 가구 같은 것은 사면 더 돈 들어갈 것이 없는데, 자동차는 다르지!” 또

한 관객은 “능력을 벗어난 구매 활동은 교통의 시작이며 경제 활동 점수가 낙제점이지”라며 덧붙인다.

‘빛을 내서 산다’, ‘있는 돈에 맞추어 산다’, ‘사지 않는다’ 세 가지 선택을 두고 객석에서는 의견이 끊임없이 오간다. 사회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정면 스크린에 비추어진 문장을 읽어간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가상의 상황극은 여기서 막을 내린다.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부모가 역할 모델을 잘해주어야 자녀의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취직되었다는 기쁜 마음에 들떠서 ‘빛지는 일’부터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부모가 역할 모델을 통해서 가르친 경제 교육의 중간고사 결과는 자녀가 첫 차를 구입하려고 조언을 구할 때 확인된다.



손목 위에 흐르는 역사

OFFICINE PANERAI

여자들이 보석을 보면 눈을 빛내듯,
손목에서 유려하게 빛나는 시계는 남자들의 로망이다.
시간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이들에게
오피치네 파네라이가 명품 그 이상의 가치를 제안한다.

Writer 안경애(프리랜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 라마,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공통점은 시계 애호가라는 것이다. 시계와 관련한 이들의 일화는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도 등장할 만큼 유명하다. 굳이 유명인의 일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남자에게 시계는 열망이자 남자다움의 상징이다. 혁신적인 스마트 위치의 등장도 아닐로고 시계에 대한 열망을 쉬이 사그라뜨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History of Panerai

이탈리아 디자인과 스위스 시계의 장인 정신이 어우러진 오피치네 파네라이는 바다와 인연이 깊은 럭셔리 스포츠 워치로 유명하다. 파네라이는 사업가이자 시계 장인이던 지오반니 파네라이(Giovanni Panerai)가 1860년 플로렌스에 시계제작소를 설립하며 155년 역사는 시작된다. 1930년대까지 이탈리아 왕립 해군에 수심계, 나침반, 심해용 손전등을 공급하며 다이빙과 관련된 정밀 장비가 특화 발전했고, 1936년에는 이탈리아 잠수함 부대의 수중탐사를 위해 '라디오미르(Radiomir)'를 개발했다. 라디오미르는 혁신을 거듭하며 시계 역사상 처음으로 수중 200m에서 사용 가능한 방수시계가 되었고, 이후 라디오미르보다 사이즈가 크고 크라운에 가드를 감싼 '루미노르(Luminor)'를 선보였다. 1956년에는 이집트 해군을 위한 수중 라디오미르 시계 '이집션(Egyptian)'을 개발했는데 같은 해 루미노르의 상징이 된 크라운 잠금 브리지를 특허출원했다. 발광물질의 이름에서 따온 라디오미르와 루미노르의 디자인은 오랫동안 이탈리아 군사 기밀로 묶여 있었고 1997년 리치몬트 그룹에 인수된 후에 전 세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오늘날 파네라이는 스위스 뇌샤텔의 매뉴팩처에서 무브먼트 및 시계를 개발, 제작하고 있다. '파네라스트라'라 일컬어지는 파네라이 시계 애호가들을 양산할 만큼 파네라이가 가진 힘은 막강하다. 150여 년을 이어온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유의 특수성, 기능성이 발현된 고정밀 시계를 창조해내는 파네라이. 앞으로의 150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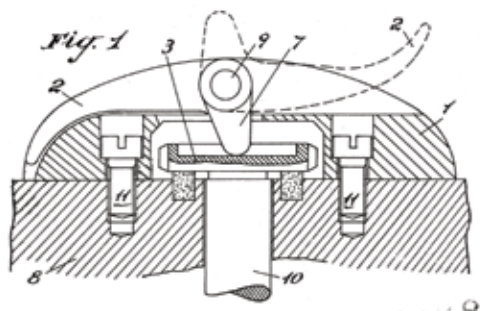
명품 그 이상의 가치, 오피치네 파네라이

다이빙 워치의 역사가 된 파네라이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시계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P.9100'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의 정교함이 눈에 띈다. 케이스와 다이얼의 역동적이고도 우아한 선은 파네라이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 전통적인 와인딩 크라운(용두) 보호장치에 장착되어 있고 44mm 지름에 산화지르코늄 기반의 합성 세라믹 케이스로 강철보다 강하면서 중량은 훨씬 가볍다. 또 스크래치 및 부식성 물질, 고온에 특히 강하다. 지르코늄 파우더를 블랙 세라믹으로 바꿔주는 섬세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 제작되어 놀랄 정도로 매끄럽고, 무광으로 마감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한껏 살렸다. 8시 방향 버튼을 눌러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즉시 영점으로 돌아가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는 플라이백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또 케이스 뒷면의 커다란 사파이어 글라스를 통해 P.9100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는 오피치네 파네라이 매뉴팩처에서 자체 제작한 최초의 오토매틱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이다. 다양한 스트랩 생산으로 유명한 만큼 루미노르 1950 3 데이즈 크로노 플라이백 오토매틱 세라미카에는 무가공 천연가죽 스트랩과 고무 소재의 세컨드 스트랩을 제공해 각기 다른 매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2-3449-5922 홈페이지 www.panerai.com



1



b45068



3



2

1 오피치네 파네라이 첫 번째 부티크의 현재 전경.

2 과거 이탈리아 해군에 납품했던 파네라이의 제품들.

3 루미노르 1950 3데이즈 크로노 플라이백 오토매틱 세라미카 44mm.



환경과 인간을 위한 가치경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폐기물,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다

시기에 맞추어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이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보다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소개한다.

Writer 백영대(월간 <현대해양> 편집국장)

쓰레기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필요악이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따른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매립과 소각, 두 가지에 불과했고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도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하고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 요즘, 이제 폐기물은 ‘처리’의 개념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되어 재활용을 통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더 쉽게, 더 많이 재활용하기 위해 탄생한 KORA

2003년부터 시행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은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게 출고량 또는 수입량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EPR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펠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 6개 포장재와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형광등, 양식용 부자 등 5개 제품이다.

EPR 제도의 도입으로 포장재 재활용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을 하게 된다. 특히, 2003년과 2012년 사이 그 재활용량이 약 64만 톤에서 약 99만 톤으로 증가하는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기존 6개 포장재재활용협회의 제도 운영은 기업들이 여러 재질의 포장재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아 각 품목별 재활용협회에 중복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

움과 이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약 10년 만인 201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이 개정되면서 EPR 재활용 체계는 기존 6개 재활용협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동시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ea Recycling Service Agency, 이하 KORA)를 신설해 법률 개정과 함께 확대된 대상 포장재와 품목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KORA는 기존 6개 협회에서 수행하던 EPR 회수·재활용 사업자 관리와 해당 품목 의무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 업무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국내 회수·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유도 및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KORA는 지원금 지급 범위를 재활용 단계에서 그 전 단계인 회수·선별 단계까지 확대했다. 이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재활용 업체들이 양질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 가능케 해 전체적인 재활용 산업의 질적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재활용 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재활용 업체들이 기술 지도나 용자사업 등을 예전보다 쉽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회수·재활용 업계가 품질 개선에만 전념할 수 있게 했다.

무심코 버린 라면봉지도 소중한 자원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체감하는 시장 온도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냉랭하다. KORA가 포장재 재활용 전담기관에서 진정한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유팩 등 종이팩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지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이팩은 폐지와 따로 배출해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KORA는 이러한 내용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팩을 많이 배출하는 육군부대, 커피 및 제빵 전문점, 유치원, 대규모 공동주택 등에 수거전용 포대를 지원해 종이팩을 집중 수거하고 이와 함께 종이팩 1·2·3(한 번 씻고, 두 번 털고, 세 번 접고) 실천문화 캠페인도 실시한다.



“쓰레기인 줄 알고 무심코 버린 라면봉지, 과자봉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만큼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85년에 도입한 반용기보증금제도는 반용기 반환 편의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점차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반환 편의성, 회수·재사용 촉진 등을 위한 재촉법 개정이 올해 1월에 이뤄지면서 관련 업무가 내년 1월부터 KORA로 이관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반용기 반환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A는 EPR 전문기관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능이 이미 EPR 제도를 뛰어넘고 있다. 윤승준 이사장은 “국내 자원순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조직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 임직원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쓰레기인 줄 알고 무심코 버린 라면봉지, 과자봉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면서, “가정에서 분리 배출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만큼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KORA

KORA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전문 공익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공헌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여름철에는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셋강지킴이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했으며, 겨울철에는 독거노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나누기로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아울러, KORA의 임직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영등포구 소재의 햇살가득지역아동센터에 매달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매월 아동센터에 방문해 고무찰흙공예나 에코백 만들기, 종이가면 만들기, 러시아 인형 공예처럼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승준 이사장은 “주어진 업무만 잘해내는 센터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공익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RA, 2015 국제 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참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포장재 재활용률 100%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구성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목표는 재활용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대중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달성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포장재가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KORA는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 및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각종 환경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KORA는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홀에서 열리는 <37회 2015 국제 환경산업기술 & 그린이에너지전>에 참가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기관에서 후원하며 20개국의 300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환경 관련 전시회이며, 전시 내용은 크게 폐기물 재활용, 환경복원 및 측정분석,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상품, 그리고 환경정책으로 총 5개 분야이다.

KORA는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참가해, 센터 및 EPR 제도 소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요령과 함께 회원사가 직접 생산한 재활용 제품을 활용한 각종 전시회를 통해 재생제품의 다양한 활용성 및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KORA의 심무경 사업실장은 “점차 전시회 참가와 홍보매체를 확대해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홍보활동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궁궐 전문가 이효일

“시니어에게는 좋은 취미와 벗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 포털사이트 ‘유어 스테이지’의
온오프라인 클럽인 ‘궁궐 이야기’의 명예회장 이효일 씨.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서 은퇴 후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탐방하는 클럽의 회장을 거쳐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을 펴내기까지,
은퇴 후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제2의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듣는다. Writer 이채현(프리랜서) Photographer 이경민(C. 영상미디어)

재미 삼아 한 공부가 강의 밑천이 되다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現 아모레퍼시픽)에 근무하던 시절 해외 출장을 자주 갔어요. 도로의 돌 하나, 건축물 디자인 등 시내 곳곳에 그 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지극히 정제된 모습이라는 생각에 무척 안타까웠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답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알기 위해 답사를 다니고 공부하는 게 당시 저의 최고의 취미이자 재미였습니다. 경복궁 앞에 서서 “이게 경복궁이구나” 하고 보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은퇴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컴퓨터 학원 등록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배워 그동안 답사를 다니며 찍은 사진 자료와 이야기, 역사 관련 기사를 꼼꼼히 정리해두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공부만은 단지 취미에 불과했어요. 사실 저는 은퇴 후 사회복지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땀으니 취직은 문제없다고 자신만만해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생각일 뿐 자격증을 들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을 때 복지관장은 “젊

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예의를 갖춰 친절히 말해줬지만 전 실망이 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우리나라 역사 관련 강의를 개설해달라’고 한 게 지금 강의를 하고 책을 펴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복지관장은 난감해했지만 승낙을 해주었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니어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그런지 강의는 인기가 있었고, 처음 한 군데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열 군데를 오전 오후로 나눠 강의하기에 이르렀고 단체의 강의 요청도 쇄도했죠. 강의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정리해 둔 사진을 비롯한 자료가 저의 강의 자료가 됐으니 말이지요. 제가 만약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방관하고 있었거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평범하고 재미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시니어의 삶을 활력 넘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를 잃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라

(주)시니어파트너즈가 운영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 포털사이트 ‘유어 스테이지’에 ‘궁궐 이야기’라는 칼럼을 진행하게 되면서 (주)시니어파트너즈 대표의 제안으로 2008년 온오프라인 정기 역사 강좌 클럽 ‘궁궐 이야기’가 개설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온라인 강좌를, 또 한 번은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역사 이야기를 하며 탐방을 다니는 모임이죠. 지금은 제가 회장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을 맡고 있지만 그 모임은 아직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런 모임이 갖는 의미는 다름 아닌 시니어들의 삶을 활기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누구나 한두 가지 혹은 그 이상 취미를 갖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시니어들은 자신의 취미를 잊거나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관계도 대부분 끊어지니 자신이 초라한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를 꼭 갖고 그 취미를 살려 활동을 하며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친구를 만든다면 더 좋죠. ‘유어 스테이지’는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들에게 좋은 활력이 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해설가, 역사 칼럼니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효일 씨는 ‘유어 스테이지’ 사이트(www.yourstage.com)에 연재한 ‘궁궐 이야기’의 자료를 모아 누구나 읽기 편한 스토리 중심의 역사 책 〈궁궐의 아침, 광화문이 열리다〉를 펴낸 바 있다. 이후 그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연재한 소설 〈바람꽃 여인, 단향〉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한 여인의 삶과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쓴 역사 소설이다.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는 ‘유어 스테이지’ 사이트의 칼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자연을 만나다!

1

HEALING SPOT, 홋카이도

떠날 것을 종용하듯 눈부신 날씨가 이어지고, 갑작스레 주어진 며칠의 여유가 반갑다면 주저하지 말자. 멀리 않은 곳에서도 대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며 고품격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일상의 고민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그곳, 클럽메드 홋카이도로 떠나보자. Writer 안경애

일상에서 주어지는 사나흘의 연휴는 꿀처럼 달콤하다.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붙잡는 것이 시간 때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맛과 문화를 동시에 즐겨보자.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 경험하는 완벽한 휴양

일본 최북단 섬 홋카이도는 장엄한 자연과 독특한 지역 문화를 지닌 그림 같은 관광지이다. 세계 10대 설경지로 잘 알려졌다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기로도 유명하다. 특히 홋카이도의 여름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날씨가 선선하고 더운 날도 기온이 최고 30℃를 넘지 않아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도 좋다. 인천공항에서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까지 2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직항 노선이 마련되어 장시간의 비행이 부담스러운 시니어 여행객이나 어린 자녀와의 동반 여행에도 좋은 가족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 홋카이도에 있는 클럽메드 홋카이도 리조트(구 사호로 리조트)는 스키 시즌에만 운영하던 사호로 리조트를 여름 시즌에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7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세 달간 운영된다. 클럽메드 홋카이도 리조트는 지난해 트립어드바이저 우수인증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2015 트래블러스 초이스(Traveler's Choice: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주관, 여행객들의 평가로 선정된 최고의 여행지, 리조트, 음식점 등)와 2015 일본 가족호텔 25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여행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국제 환경자문기관 'EC3 글로벌'로부터 그린 글로벌 인증(Green Globe Certification: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등을 사용하는 호텔 및 여행사에 수여하는 친환경 인증마크)을 획득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에코 리조트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클럽메드 휴양에 홋카이도 관광을 더하다

홋카이도 리조트에서는 산악자전거, 피크닉, 트레킹, 번지바운스 등 다채로운 스포츠 액티비티를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를 즐긴 후에는 리조트 내 사우나, 일본식 목욕탕 '오후로', 스파(추가비용 발생) 등 최고급 시설에서 릴랙싱 프로그램을 누려볼 수 있다. 특별한 테마의 다양한 이벤트와 매일 밤 다른 공연이 펼쳐지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및 파티도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도 신선한 해산물을 곁들인 현지 특식 등 전 일일 식사, 쾌적한 객실, 무제한 음료 및 주류, 키즈클럽까지 한 번의 예약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클럽메드만의 올-인클루시브 서비스가 편리하고 특별한 휴양을 가능하게 한다. 클럽메드 홋카이도 리조트가 특별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클럽메드 홋카이도에는 홋카이도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외부 일정 없이 리조트 내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클럽메드 에어패키지, 클럽메드 투숙 전 2박 3일간 홋카이도 명소를 관광할 수 있는 홋카이도 가이드 투어, 클럽메드 투숙 후 1박 2일간의 삿포로 시티 또는 온천을 방문할 수 있는 홋카이도 스톱오버 패키지 등 구성도 다양하다. 클럽메드 투어 패키지를 통해 삿포로의 아름다운 도시는 물론 꽃 농원, 소운교 온천, 아름다운 은하 폭포, 류세이 폭포, 알파카 농원 등을 방문할 수 있다. 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북극곰을 만나보고, 수중터널에서 펭귄이 헤엄치는 모습을 360도로 관찰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문의 02-3452-0123 홈페이지 www.clubmed.co.kr

클럽메드 홋카이도 상품 여름 시즌 출시 기념 프로모션

클럽메드에서 홋카이도 리조트 상품의 여름 시즌 출시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항공이 포함된 클럽메드 에어패키지 상품 예약 시 성인 최저 1백24만원대(3박 4일 기준)부터 만나볼 수 있으며, 홋카이도 가이드 투어 상품은 1백75만원대(항공 포함, 3박 4일 기준)부터 이용 가능하다. 클럽메드 홋카이도 리조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클럽메드 홈페이지(www.clubmed.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과 (02-3452-0123)를 통해 자세한 예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투어 상품은 전화예약만 가능)



2

- 1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정지역 홋카이도.
2 산악자전거, 번지바운스, 골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3, 4 뷔페와 현지 특별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바.
5 동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전시'로 유명한 아사히야마 동물원.



3



4



5



중장년 취업과 창업의 든든한 지원군 시니어파트너즈

중장년 교육 전문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5년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고령층 IT창업교육'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Writer 구희근(시니어파트너즈 교육운영팀장)

2015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주)시니어파트너즈는 컨소시엄으로 해당 사업에 공모했으며 8개 기관(국제정보법률교육학원, 대신기술능력개발원,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조선에듀케이션,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 10개 교육 과정(법률사무소 취업과정,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납정리 전문가과정, 인사담당자 채용플래너과정, STEAM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술사 1~3차, 빌딩환경 & 안전관리 취업아카데미, 인사조직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시니어파트너즈와 8개 훈련기관은 각각 생애재설계멘토링과 커리어코칭, 기본역량강화 및 취업훈련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의 대량 퇴직과 저출산·고령화로 핵심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역량 특화과정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다.

훈련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으로 조직(실업)자 또는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전직 또는 퇴직(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2015년 고령층 IT창업교육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인 (주)시니어파트너즈는 (주)시도우와 컨소시엄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쇼핑물 창업'이라는 중장년 창업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이번 운영기관 공모에 응모했다. (주)시도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주)시니어파트너즈는 이번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디지털 콘텐

츠 제작 및 온라인 쇼핑물 창업'이라는 주제로 총 24명의 55세(1960년 출생자) 이상 시니어에게 17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시니어들이 온라인 쇼핑물 론칭과 동시에 실질적인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노하우를 배우고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는 데 있다. 또한 교육 기간 이후 모바일 쇼핑물 구축을 위한 실질적 경험을 축적하여 자기학습을 통한 진입 통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시니어 층의 눈높이에 최적화된 오픈마켓 및 쇼핑물 구축 방법론 제공과 실무적인 기술 습득이다. 직접 판매

가 가능한 상품 공급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SNS와 키워드 광고, 유튜브 동영상 등의 활용법 교육, IT창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고령층 IT창업교육과 달라진 점은 디지털 콘텐츠(자서전 e-Book) 제작 및 창업 아이템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주)시니어파트너즈의 특화과정인 '라이프 모델링'과 멘토링을 통한 그룹 코칭, 생애재설계 '라이프 모델링의 8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시간간의 제약을 고려한 '그룹 멘토링' 방식을 적용한다. '그룹 멘토링'을 통한 '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기주도' 창업을 실체화하여 창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시니어파트너즈의 '시니어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시니어 강사 20여 명이 직접 투입되어 '시니어가 시니어를 가르치는' 지혜의 교환 기회로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은 오는 7월 1일 개강 예정이며, 교육 장소는 IT장비 등의 사용을 고려해 이번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주)시도우의 알렛 스퀘어 강의장(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3월 31일에 고령층의 경륜과 노하우에 IT를 접목한 지식 기반 창조경제형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IT를 활용한 고령인력의 생산인력화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고령층 IT창업교육 수행기관을 선정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기관은 (주)시니어파트너즈를 포함해 총 5개 기관(5개 과정)으로 한국실버IT연구개발연합회(IT의 아두이노와 WEB을 연계한 스마트제품 창업교육),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시니어 전자출판 창업과정), (주)씨이오(이베이 해외쇼핑물 입점을 통한 스마트 수출 창업실무 과정), (사)비영리IT지원센터(시니어IT전문가 양성학교) 등이다.

문의 시니어파트너즈 교육운영팀 구희근 팀장
02-3218-6244 edu@yourstage.com



©시니어파트너즈



사계절 내내 일본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앳피리조트

6월에 필드를 걸어본 골퍼들은 안다.
여름이 오기 전 잔디의 폭신한 감촉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하는
이와테 현에는 골퍼들과 가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멋진 리조트가 있다.
웅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안긴
앳피리조트다. Writer 이은정

봄 벚꽃, 여름 바다, 가을 단풍, 겨울 눈과 온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는 히라이즈미의 문화유산, 동화작가 미야자와 겐지, 소설가 이시카와 다코보쿠 등 역사와 문화에 흠뻑 잠길 수 있는 여행지 이와테 현. 특히 조도가하마와 키 타야마자키 전망대 등으로 유명한 '육중한 국립공원'과 일본에서 가장 투명하다는 호수가 있는 지하 동굴 '류센도', 웅장한 이와테 산에 접해 있는 '아하타다이라 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명소가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자작나무 원생림에 둘러싸인 환상의 골프 코스

골프, 스키는 물론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사계절 가족형 리조트 앳피리조트는 한국에서도 골프와 스키 시즌에 많은 여행객이 찾는 곳이다. 앳피고원 골프클럽은 해발 약 600m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의 상쾌함과 리조트의 느긋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와다 하치만타이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골프 코스 전체가 자작나무 원생림에 둘러싸여 있어 여름에도 고원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플레이할 수 있다.

전체 길이 13,352야드, 총면적 130만㎡의 넓은 부지에 자연의 지형을 살린 개성 넘치는 36홀에서 지형의 변화, 연못과 아름다운 꽃 등 다양한 재미를 느끼며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골프 코스는 크게 챔피언 코스와 리조트 코스로 나뉘는데, 챔피언 코스(하치만타이 코스와 이와테 산 코스)는 7번의 JLPGA 토너먼트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엽다운 등 재미있는 코스의 레이아웃으로 반복 플레이에도 질리지 않는 리조트 코스(도와다 코스와 류가모리 코스)가 있다. 앳피리조트에서는 챔피언 코스와 리조트 코스 외에 회원 전용 코스인 '메이플 컨트리클럽'도 이용이 가능하다.

격조 높은 명문 골프장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 '메이플 컨트리클럽'은 앳피고원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주)이와테 호텔&리조트가 경영하는 또 하나의 회원 전용 골프클럽이다.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활용한 곳으로 세계 명문 코스의 이미지를 곳곳에 재현해놓아 이와테 현은 물론 전국적으로 선망받는 골프장으로 감동적인 골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진정한 종합리조트

앳피리조트에서는 골프를 즐기지 않아도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호텔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일본 '삼림욕 숲 100선'에 선정된 앳피 고원 너도밤나무 숲에서 트레킹을 하며 수려한 장관을 즐길 수 있다. 너도밤나무 숲은 음이온이 풍부하고 시원하여 자연의 치유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맑은 날이면 밤하늘의 별을 맘껏 관찰할 수 있는 별밤관찰 프로그램이 있다. 앳피고원 '나카노 마키바'는 일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별 관찰 필드다. 이 밖에도 앳피리조트 목장 바비큐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온천 '파티오'에서 골프를 즐긴 후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앳피온천은 온화한 수질이 특징인데 너도밤나무 숲에 내린 비가 부엽토 속으로 스며들어 땅속 깊이 침투한 뒤에 솟아나는 온천이다. 자연상태의 사람과 같은 약알칼리성 온천수로 자외선이나 대기의 영향을 받아 약산성으로 변한 피부를 감싸 오래된 각질을 제거해주는 자연의 은혜가 담긴 온천으로 유명하다.

앳피리조트에서는 온수풀, 피트니스, 스쿼시 코트 등 스포츠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날씨가 좋지 않아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먹거리 또한 일식, 중식, 뷔페식, 한식 불고기 등 최고의 재료를 써서 준비한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조트가 직접 운영하는 목장에서 만든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또한 앳피리조트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앳피리조트는 겨울이면 핫카이도 못지않은 풍부한 눈과 최고의 설질로 일본 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스키장이다. 표고 1,305m의 마에모리 산과 1,328m의 니시모리 산에 5.5km 다운힐의 야마바토 코스를 비롯한 평균 코스 2.1km에 달하는 21개 코스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인 일본 스키장을 훌쩍 뛰어넘어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앳피리조트는 대한항공 아오모리, 아키타 직항편으로 다양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앳피한국사무소 02-3473-5822 홈페이지 <http://appi.co.kr>



- 1 앳피리조트의 골프장은 계절마다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 2 겨울이면 스키와 썰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 3 그랜드 본관 내부 전경.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 4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티 라운지.
- 5 리조트 코스 류가모리 8번홀. 앳피리조트는 지형을 살린 개성 넘치는 골프 코스로 유명하다.
- 6 곤돌라를 이용해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Upgrade Your Living, Rolf Benz

거실의 상징이자 집 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소파.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기에 편안해야 하고,
손님을 맞이하기에 디자인과 품격도 갖추어야 한다.
공간을 바꾸는 힘이 소파에 있다. Writer 안경애(프리랜서)



거실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파는 단지 눈으로만 보이는 화려한 디자인이 전부
는 아니다. 최근에는 소유한 사람의 안목을 드러내는 예술품으로서 장식 하나
에도 스토리가 담긴 소파가 주목을 받고 있다.

Rolf Benz, 리빙에 품격을 더하다

독일이 만들고 세계인이 사랑한 명품 소파, 바로 롤프 벤츠(Rolf Benz)다.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프리미엄 업체들의 전시회를 가본 이들이라면 롤프 벤츠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프리미엄 업체와 마케팅 협력을 하고 있는 롤프 벤츠는 전 세계 350여 개의 매장을 둔 업홀스터리(Upholstery) 브랜드로, 세계 3대 소파로 꼽히며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롤프 벤츠는 1959년 숲이 울창한 독일 남부의 나골드에서 시작되었다. 1964년에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코너형 소파인 애디폼(Addiform)을 세계 최초로 제작했다. 소파 제작에 필수적인 패브릭, 가죽, 우든 프레임을 제작하는 공장을 독일의 뵘징겐, 팔츠그라펜바일러, 피트친겐에 설립했고 이는 최고급 소파 제작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롤프 벤츠의 철학은 최상의 안락함과 하이모던(High-modern) 디자인으로 모든 모델은 100% 독일 기술로 독일 내에서 제작된다. 또한, '모든 제품을 자체 디자인으로 만든다'를 모토로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과 콜라베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메르세데스-벤츠와 콜라베레이션한 롤프 벤츠 6500 소파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그 결과 롤프 벤츠는 트렌드를 예견하고 제시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의 장인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며 묵직하고 웅장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롤프 벤츠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품격과 디자인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서 더욱 빛나는 예술품이다.

롤프 벤츠 370 TIRA

롤프 벤츠는 2015년 밀라노 페어에서 새로운 모델 370 TIRA를 출시했다. 370 티라 소파는 롤프 벤츠 노바 소파를 디자인한 요아힘 네스(Joachim Nees)의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담겨 있고 동시에 유행에만 치우치지 않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370 티라는 소비자들이 롤프 벤츠 소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약한 제품이다.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부드럽고 아늑한 시트의 편안함, 유용한 기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넘어 놀라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모든 좌석에 시트를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옵션을 장착할 수 있어 TV 앞에서 완벽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또한, 슬라이딩이 가능한 시트와 그에 따른 옵션에 따라 잠깐의 낮잠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티라 컬렉션은 고객의 요구에 맞게 1인 소파에서부터 다양한 엘리먼트를 조합한 카우치 소파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기술력, 디자인, 명성까지 갖춘 롤프 벤츠는 한국 공식 수입원이자 독일 브랜드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영동가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7-7850 홈페이지 www.youngdonggagu.com



WATCH

로저드뷔, 벨벳 오토매틱 엔트리 모델 2pcs 출시

스위스 제네바 명품 워치 브랜드 로저드뷔가 6월, 벨벳(Velvet) 오토매틱 엔트리 모델을 처음 선보인다. 가장 성공적인 컬렉션으로 손꼽히는 벨벳 컬렉션은 화려한 디바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파인 워치메이킹의 프리마돈나를 대변하는 컬렉션이다. 여성들이 표현하기 원하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세련된 디자인과 최상의 무브먼트에 담았다. **제품문의**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로저드뷔 부티크 02-3213-2244, 현대백화점 본점 로저드뷔 부티크 02-3449-5914

LIVING



잘라, 플로럴 모달 베딩 컬렉션

리빙·베딩 전문 브랜드 잘라(Jalla)가 6월을 맞이해 플로럴 패턴이 어우러진 모달 베딩 컬렉션을 제안한다. 친환경 자연 섬유인 마이크로 모달 소재를 사용해,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과 포근함, 쾌적함을 선사한다. 문의 02-540-4723

FASHION



퐁크트, '저먼 파티나 스니커즈' 출시

1970년대 독일 연방군에게 보급한 트레일러 슈즈에서 착안해 제작한 '저먼 파티나 스니커즈'가 출시됐다. 가죽에 그윽한 색감을 부여하는 '파티나(Patina) 기법'과 신발 외부에 실선이 보이지 않는 히든 스티치 재봉 방식으로 클래식함을 더했다. 문의 02-517-1263

BEAUTY



센틀리에(Scntlier), 플라워 오브 산청 & 포레스트 오브 산청 출시

감귤, 매화, 짙레꽃의 향기, 야생 식물과 소나무의 청량한 향을 담은 플라워 오브 산청과 포레스트 오브 산청 라인 제품을 출시했다. 퍼퓸, 디퓨저, 캔들, 룸 프레그런스를 비롯해 바디 에센스, 핸드크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322-1178

BEAUTY



비오템, 건조한 봄철 피부에 '수분 듀오' 제안

비오템이 피부 속 수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수분 듀오'를 제안했다.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는 가벼우면서 강력한 진정, 보습 관리 기능을 '아쿠아수르스 나이트 스파 트리트먼트'는 깊은 보습 효과로 편안한 피부로 가꾸어준다. 문의 080-022-3332

HOTEL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의 '스윗 시즌 웨딩'

주중 혹은 일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고객을 위해 특별 웨딩 메뉴, 허니문 스위트 1박을 제공한다. 2015년 9월 30일까지 예약을 계약한 고객 중 한 커플(2인)에게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2211-1900

WATCH



쇼파드, 그랑프리 모나코 히스토리 파워 컨트롤

쇼파드(Chopard)가 티타늄과 골드 소재의 '그랑프리 모나코 히스토리 파워 컨트롤'을 선보인다. 스네일 모티프의 그레이 다이얼이 18캐럿 로즈 골드 베젤 및 크라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격은 1천만 원대. 문의 02-6905-3390



FASHION

서울에 단독 부띠끄 오픈한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 강남구 청담동 중부에 디올 부띠끄를 개장한다.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찬 드 포잠박이 설계하고 피터 마리노가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를 잡은 총 6층짜리 건물로, 피에르 에르메가 운영하는 디올 카페와 라운지와 갤러리, 최초의 단독 옴므 부띠끄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디올 서울 부띠끄는 2015년 6월 20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 내에서만 판매될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도 출시한다. 문의 02-513-3200

FASHION



코스와 스나키텍처의 컬래버레이션

코스(COS)는 올해 밀라노 가구 박람회(살로네 델 모빌레: Salone del Mobile)를 기념해 스나키텍처(Snarkitecture)와 협업했다. 스나키텍처는 브레라(Brera)의 스파치오 에르베(Spazio Erbe)를 반투명 동굴 작품으로 애워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문의 www.cosstores.com

BEAUTY



CL4(씨엘포), 남자를 위한 '옴프 액티브 포스 올인원' 출시

씨엘포(CL4)가 토너, 앰플, 크림의 기능을 모두 갖춘 남성 전용 에센스 '옴프 액티브 포스 올인원'을 출시했다. 특성성분 아워버섯 균사체/인삼열매(진생베리) 추출 발효여과 물을 함유해 풍부한 영양과 에너지를 전달한다. 문의 080-332-3885

FOOD



아몬드브리즈, 스타 셰프들과 함께하는 '브리즈 고메' 실시

블루다이어몬드는 아몬드 음료 '아몬드브리즈' 출시를 기념해 7월까지 '브리즈 고메' 캠페인을 실시한다. 셰프들이 직접 아몬드브리즈를 활용한 다이어트/건강 레시피를 개발,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www.almondbreeze.co.kr

FURNITURE



히몰라의 리클라이너 체어 4668

히몰라가 2인 리클라이너 기능이 탑재된 최상품 리클라이너 체어 4668을 선보였다. 매일 달라지는 신체 리듬에도 언제나 편안한 착석감을 주는 소파 히몰라는 한국 공식수입원이자 독일 브랜드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영동가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7-7850

FASHION



클래식한 젠틀맨의 선택 니로, 하급데 안경 출시

독일 하우스 브랜드 니로에서 클래식한 감성이 돋보이는 하급데 스타일의 안경을 선보인다. 여름철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 포멀한 스타일은 물론, 비즈니스 남성들의 일상 데일리 룩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문의 02-565-6940

LIVING



조이클래드, '통3중 프라이팬 3중' 출시

프라이팬 전체가 스테인리스-알루미늄-스테인리스 순의 통3중 구조로 제작되어 내구성 및 위생성이 우수하다. 열전도가 탁월해 자체 수분과 지방만으로 요리가 가능하므로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 영양분을 살릴 수 있다. 문의 02-596-8353

BOOK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2015)

2015년 바뀐 법령,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의 세법을 총망라한 책. 연말정산이 13월의 재앙으로 바뀐 이유는 개정된 세법 때문.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세테크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변경된 세액공제 내용, 각종, 부동산 세법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길벗, 1만 8천원.



36계

36계의 체제와 각 계책을 알기 쉽게 집어준 책. <36계>는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만을 추출, 그 실용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병법서이자 고전이다. 역사 속 다양한 36계 활용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본다. 김영수 편저, 사마천, 1만 5천원.



제3의 인생 설계 신노년문화

한국노년학회 회장을 역임한 저자의 신개념 노년문화 담론집. 노년의 시기가 이미 30년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서 노년이 가져야 하고 달라져야 할 생각, 사회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시스템과 인식, 정부의 정책과 추가적인 제도 등에 대한 폭넓은 생각의 교감을 담고 있다. 김동배 지음, 소아, 1만 3천원.



서울 사는 나무

서울에서 살아가는 나무 이야기. 서울의 흔한 길과 그 길이 지나는 동네, 서울을 숨 쉬게 하는 크고 작은 공원, 조선의 궁궐 등에서 어찌하여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살게 되었는지 연유를 되짚으며 자연스레 나무가 살아가는 길과 공원, 궁궐의 내력을 들여다보았다. 장세이 지음, 목수책방, 2만원.

동화같은 파노라마 자연 속 홋카이도 맛과 문화

클럽메드 홋카이도 여름 개장, 7-10월 출발
지역관광 패키지 가이드 투어 175만원대부터
클럽메드 에어패키지 124만원대부터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간 교통편
-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 ☑ 고품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 안락한 객실
-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